

##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양영문\* · 신호식\*\* · 이선정\*\*<sup>1)</sup>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 The Effect of Emphatic Ability and Family Strengths on Happiness in Adolescents

Yang, Yeongmun\* · Shin, Hyoshick\*\* · Lee, Seonjeong\*\*<sup>1)</sup>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ays to help improve adolescents' happiness by exploring the influences of emphatic ability and family strengths on happiness. This subjects were 514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SPSS 22.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emphatic ability('viewpoint', 'identity', 'emphatic interest'), family strengths('family respect and affection',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bonds', 'financial stability') and happiness scores were higher than the median(3.00). Emphatic ability('viewpoint', 'identity', 'emphatic interest', 'personal suffering') and family strengths('communication and bon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Second, the adolescents' happiness was influenced by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financial stability', 'personal suffering', 'identity', and 'emphatic interest'. Adolescents' happiness was explained about 39% by these variables. In other words, the higher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both higher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and higher financial stability, with lower personal suffering and higher identity and higher emphatic interest showed the higher happines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emphatic ability and family strengths in adolescents influence on the level of happiness. As such, in order to improve the happiness of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energize those programs focus

---

1) 교신저자: Lee, Seonjeong,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0, Fax: 062-530-2529, E-mail: overwhelming@hanmail.net

on the forming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and to design finance assistance programs that could attempt to minimise financial gap.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aimed to enhance emphatic ability and continue such programs in homes as well as at schools.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urriculum that may improve family strengths and emphatic ability, which have influenced on the happiness in adolescents. Since the subject “Technology & Home Economics” helps to enhance family strengths, emphatic ability and eventually amplifies the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reinforce it as well as to make it a mandatory subject.

**Key words:** 공감능력(Emphatic Ability),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행복감(Happiness)

## I. 서론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행복에 대한 관심은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왔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인 긍정 심리학의 영향으로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이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won, 2008). 학문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국가적인 관심 또한 높다. UN은 매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와 일본의 ‘국민행복지수’, 우리나라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현재 한국 사회의 행복감은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여러 연구를 통해 발견되고 있다. UN 지정 ‘세계 행복의 날’(3월 20일)을 맞아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세계 143개국의 행복 순위를 공개했는데 한국인의 행복감은 118위였다. 또한 OECD의 2015년 ‘더 나은 삶 지수(BLI)’ 조사 결과 한국은 36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주관적 경험인 행복을 수치화해 비교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기관마다 각각 다른 척도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Chosun.com, 2015. 4. 25.).

행복의 유지는 모든 인간발달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업 및 미래에 대한 부담감, 부모 및 또래와의 갈등,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불안, 스트레스,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더욱 필요하다(Kim & Koh, 2014). Fredrickson(2001)에 의하면, 긍정적 감

정의 증진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므로,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는 청소년기에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해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보다 낮으며(Han et al., 2012),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도 주관적 행복이 낮다(Park, Park, Seo, & Youm, 201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에 의한 학업 스트레스, 부모, 가정, 친구 등과 관련된 부정적 사건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점차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Cho & Ko, 2012; Kim & Hong, 2007; Kwon & Song, 2011; Lee & Kwak, 2011; Shin, Jeon, & Yoo, 2010). 낮은 행복감은 다시금 좌절감, 무력감, 음주 및 자살충동과 같은 문제 행동 유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진행되므로(Kim, 2012) 청소년기의 행복감은 건강한 사회 적응 및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것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행복한 삶과 생산적인 집단생활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한 사람이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며(Choi & Weon, 2013), 청소년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Park & Kim, 2008).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조건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Rogers 이후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Park, 2002). 대인관계는 인간관계 중심의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Park & Kim, 2008).

특히 대인관계가 넓어지는 중학생 시기에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삶을 더 풍성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Lim & Lee, 2012). 또한 공감능력은 학교생활에서의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중요한 변인(Kim, 2002; Lee, Yu, & Son, 2008)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흔히 이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적응 문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의 주 활동 공간인 학교장면에서의 적응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양상과 질, 공감 능력의 함양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하는 대인관계의 질은 이후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Yoon, 2001).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생존하고 발전한다. 청소년기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 상호관계를 맺고(Kim, 2012), 그러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Shin & Lee, 2012). 최근에는 가족의 행복이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실천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된 ‘건강가정’ 개념이 등장하였다(Lee & Yoo, 2014). 경쟁과 성취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과 배려를 생활 속에서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과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족 간의 유대 약화 및 의사소통의 부족은 청소년의 부적응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가족구성원의 단순한 부재보다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Son, 2002). 따라서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행복감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관련요인(Jung, 2008; Kim, 2010; Kim & Hong, 2007; Koo, Park, & Jang, 2006), 학교관련요인(Koo & Park, 2005; Park & Bae, 2012), 건강요인(Kwon, Lee, & Song, 2012; Park & Lee, 2013), 개인특성·환경특성(Sung &

Kim, 2013), 사회적지지(Baek & Lim, 2013; Park, 2007), 자아존중감(Cha & Kim, 2002; Jang, 2002; Ryu & Kang, 2012), 자기효능감(Ahn, 2007; Park & Kim, 2009), 긍정적 심리(Im, 2004; Kim, 2007; Lee, 2005; Lee, 2008), 스트레스(Cho & Ko, 2012), 가족·친구·학교환경변인(Heo, 2009)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서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지만,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관계중심적인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공감을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가 중요시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강조되기 때문에(Cho, Kim, & Choi, 2009) 높은 공감 능력은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능력이 발달하면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감정을 이해하는 수준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공감능력을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 요인에서 가족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가족건강성 차원에서 행복감과 연관성을 살펴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감능력, 가족건강성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의 하위 영역 중 어떠한 특성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감이 증진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가정과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감능력, 가족건강성과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공감능력

공감(empathy)은 사전적으로는 ‘타인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Davis(1983)는 공감이란 타인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에 대해 대리적으로 경험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Hoffman(1987)은 공감능력을 자신보다 타인의 상황에 적절한 정서적 반응이며 상대방의 정서 상태나 조건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그것에 부합하거나 일치하는 정서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공감은 인간 상호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이타적 행동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은 공감의 결핍으로 인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과거에는 집단 중심의 생활로 공감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서로 얼굴을 맞대며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기회가 많지 않다(Kim, 2015).

공감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 오면서 공감은 인지 혹은 정서, 어느 한 부분에만 관련된 단일 개념이 아니며 다차원을 가진 개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Cho & Lee, 2010). Davis(1983)는 공감을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등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일련의 요소들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공감은 인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Leontopoulou, 2010; Stetson & Hurley, 2003), 본 연구에서도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인 차원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공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03)은 공감능력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성향을 높여주며 대인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성향을 낮춰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Reivich와 Shatte(2002)도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욱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an(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청소년 도덕성과 사회성 발달

영역의 한 지표인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공감은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서로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Hong, 2004),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Lee & Cho, 2014), 사회적 관계망 확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공감이 행동이 아닌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에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을 측정하는 준거가 되는 ‘건강한 가족(strong family)’의 개념은 최근 가족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가족의 중요성, 특히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인 건강성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건강가족 연구가 시작되어, 이후 건강가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Yoo, Lee, Kim, & Choi, 2013), 2005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족 문제의 치료와 해결은 물론 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가정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가족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Eo와 Yoo(1995)는 가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가치)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고, Yoo(1999)는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가족(healthy family)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대화기술,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라 정의하였다. Yoo(2004)는 가족관계에 대한 성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이라고 하였고, Kim과 Kim(2011)은 가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인 가족

간 유대, 의사소통,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원만하며,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가족건강성은 가족체계 내에서 개인 및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가족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im과 Choi(2010)는 청소년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이 높다고 하였고, Yang과 Hong(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준비, 적응 및 수행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Yun, Lee와 Jun(2011)은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Jung와 Lim(2011)은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쳐 가족원간의 친밀감이 높고 가족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가족건강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3. 행복감

사전적 의미의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표준국어대사전)를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가깝게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의 행복감은 삶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성격이 강한 데 비해 주관적 안녕감은 사회 속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총합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Kim & Back, 2008).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주관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한 개인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행복한 정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선호되고 있다(Kim & Kim, 2000).

Diener(1984)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행복에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주관적 안녕감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행복 연구를 본격화 하였다. 그는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 기준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며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평가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oo 외(2006)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삶의 만족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보았으며, Kim과 Chung(2008)은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학업 성취도 등이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Kim(2010)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행복감이 높다고 하였으며, Lim과 Park(2006)은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Park과 Lee(201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인 경우, 양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고학년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건강 요인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탈행동 요인에서는 인터넷, 술, 담배 및 약물을 적게 사용할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Kim(2009)은 청소년의 행복에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영향력 있는 정서적 지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 높은 학업성취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Shin 외(201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과 안녕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개념, 낮은 수준의 우울,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다차원적으로 연구가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가치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므로(Kim & Koh, 2014),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대비하

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4. 공감능력, 가족건강성과 행복감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감능력, 가족건강성과 행복감의 관계는 개별 변인 또는 각 변인간의 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공감능력과 청소년의 행복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과 Koh(2014)는 경기 지역 중학생의 희망 및 공감과 행복감과의 관계 연구에서 희망 및 공감 수준이 높은 중학생이 높은 행복감을 나타냈고, 행복감은 희망 및 공감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Lee(2007)는 희망과 공감의 정도에 따라 하위집단을 분류하였는데, 높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이 또래관계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고, 낮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은 또래관계의 질과 안녕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은 청소년의 행복감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삶의 질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7)의 『2017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지난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주요한 가출 이유로 ‘가족과의 갈등’(74.8%)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생활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감소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Hwang, 2006; Paikoff & Brooks-Gunn, 1991; Shearer, Crouter & McHale, 2005) 부모와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이는 가족 외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한 역할과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Steinberg, 2008). Koo와 Park(2005)은 청소년이 가족과 안정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할 때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는데 특히 가족 결속력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고, Lee(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Koo 외(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대화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Ahn과 You(2013)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Jang(2004)은 지지적 의사소통이나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 방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청소년 사이에 갈등이 많게 나타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가족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갈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Bae와 Kim(2007)은 가족건강성이 낮고 역기능적인 가족의 구성원은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를 통해 가족건강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기 인격형성과 정신건강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공감능력,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계가 있으며 행복감을 설명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 변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항을 파악하여 설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15년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편의표집한 3개교의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을 진행하게 하였다.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 내용과 방법을 안내한 후, 담당 교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51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14			
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Gender	Male	242(47.1)	Standard of living	High	175(34.1)	
	Female	272(52.9)		Middle	301(58.6)	
Family type	nuclear family	483(94.0)		Low	38( 7.3)	
	extended family	31( 6.0)				
Father 's education achievement	Middle school and less	6( 1.2)		Mother 's education achievement	Middle school and less	7( 1.4)
	High school	166(32.3)			High school	218(42.4)
	University grad	312(60.7)	University grad		257(50.0)	
	Graduate and more	30( 5.8)	Graduate and more		32( 6.2)	

2.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감능력, 가족건강성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5문항, 공감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28문항, 가족건강성을 파악하기 위한 27문항, 행복감을 파악하기 위한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가족형태, 생활수준, 부 학력, 모 학력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계적 반응지수(A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Kim(201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감은 크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뉘며, 인지적 공감의 하위영역에는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인 ‘관점 취하기’, 가상 상황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인 ‘동일시’, 정서적 공감의 하위영역에는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불행에 대해 염려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공감적 관심’,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았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불편한 감정인 ‘개인적 고통’이 포함된다. 각 영역은 7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 Likert 척도로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하위요인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 α)는 관점취하기 .70, 동일시 .77, 공감적 관심 .72, 개인적 고통 .71이었다.

3) 가족건강성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Y. Yoo(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4개 영역의 27문항을 구성한 Lee(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존중 및 애정’에 대한 12문항,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에 대한 6문항, ‘의사소통 및 유대감’에 대한 5문항, ‘재정적 안정’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 α)는 가족존중 및 애정 .95,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87, 의사소통 및 유대감 .87, 재정적 안정 .86이었다.

4) 행복감

행복감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Ryff(1989)의 심리적 행복감 척도(The 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에서 자기수용과 삶의 목적과 관련된 문항을 선별하고 여기에 전반적인 행복감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총 10문항을 구성한 Shin과 Lee(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 α)는 .89이었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청소년의 공감능력, 가족건강성,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남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과 단계적(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간 값(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았는데 특히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변인은 '동일시'였다. 또한, '공감적 관심'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개인적 고통'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은 '가족 존중 및 애정' 3.76,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3.54, '의사소통 및 유대감' 3.50, '재정적 안정' 3.88로 모두 중간 값(3점)을 상회하는 수치이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및 유대'를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행복감은 3.47로 중간 값(3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IV. 연구 결과

### 1. 남녀 청소년의 공감능력, 가족건강성과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

남녀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감능력, 가족건강성과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감능력은 '관점 취하기' 3.28, '동일시' 3.43, '공감적 관심' 3.52, '개인적 고통' 2.99로 '개인적 고통'을 제외하고는 중

### 2.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 존중 및 애정( $r=.53, p<.001$ ),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 $r=.52, p<.001$ ), 의사소통 및 유대( $r=.47, p<.001$ ), 재정적 안정( $r=.37, p<.001$ ), 관점취하기( $r=.30, p<.001$ ), 동일시( $r=.28, p<.001$ ), 공감적 관심( $r=.28, p<.001$ )은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개인적 고통( $r=-.18, p<.001$ )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Table 2. Examining the General Tendency of Emphatic Ability, Family Strengths and Happiness

Variables		M(SD)			t
		Total	Male	Female	
Emphatic Ability	Viewpoint	3.28(.46)	3.21(.44)	3.34(.47)	-3.30***
	Identity	3.43(.62)	3.23(.57)	3.62(.62)	-7.27***
	Emphatic Interest	3.52(.53)	3.36(.58)	3.69(.50)	-6.97***
	Personal Suffering	2.99(.53)	2.86(.49)	3.10(.54)	-5.35***
Family Strengths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3.76(.71)	3.72(.71)	3.80(.72)	-1.26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3.54(.68)	3.55(.69)	3.53(.67)	.38
	Communication and Bonds	3.50(.82)	3.36(.80)	3.62(.83)	-3.73***
	Financial Stability	3.88(.72)	3.82(.68)	3.93(.75)	-1.80
Happiness		3.47(.66)	3.47(.68)	3.47(.63)	-.05

\*\*\* p<.001

N=514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	2	3	4	5	6	7	8
	1. Viewpoint							
Emphatic Ability	2. Identity	.33***						
	3. Emphatic Interest	.45***	.47***					
	4. Personal Suffering	-.04	.27***	.17***				
Family Strengths	5.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29***	.15**	.23***	-.15**			
	6.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28***	.14**	.18***	-.16***	.79***		
	7. Communication and Bonds	.30***	.22***	.25***	-.06	.73***	.68***	
	8. Financial Stability	.21***	.15***	.18***	-.07	.44***	.47***	.43***
	9. Happiness	.30***	.28***	.28***	-.18***	.53***	.52***	.47***

\*\* p<.01, \*\*\* p<.001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 의사소통 및 유대, 재정적 안정, 관점취하기, 동일시, 공감적 관심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으며, 개인적 고통이 적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청소년의 공감능력, 가족건강성과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행복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선선 통계량의 공차(TOL)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를 조사한 결과, TOL은 .35-.88로 0.1이상이고 VIF는 1.14-2.93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Durbin Watson) 계수는 1.86으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표준화된 잔차들을 이용하여 정규확률그림(Q-Q plot)을 그렸을 때 점들이 비교적 선형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회귀 표준화 잔차와 회귀 표준화 예측값에 의한 산점도를 확인해 본 결과 특정 패턴없이 흩어진 형태로 나타나 등분산성도 충족되어

회귀 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행복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 변인들은 개인적 고통( $\beta=-.18, p<.001$ ), 동일시( $\beta=.18, p<.001$ ), 공감적 관심( $\beta=.14, p<.001$ )이었고, 가족존중 및 애정( $\beta=.25, p<.001$ ),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beta=.20, p<.001$ ), 재정적 안정( $\beta=.10, p<.05$ ) 등 가족건강성 변인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행복감을 39% 설명해주고 있다. 즉,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았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불편한 감정 정도가 낮을수록, 가상 상황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불행에 대해 염려하고 연민을 많이 느낄수록 행복감은 높았고, 청소년이 인식한 가족 내 가족존중과 애정도가 높을수록, 가족 간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높을수록, 재정적으로 안정적일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감은 높았다.

Table 4. Examining Influence of Emphatic Ability and Strengths on Happiness

Variables	B	$\beta$	t	VIF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23	.25***	4.18	2.88
Identity	.19	.18***	4.25	1.44
Personal Suffering	-.22	-.18***	-4.92	1.14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19	.20***	3.30	2.93
Emphatic Interest	.17	.14***	3.26	1.45
Financial Stability	.09	.10*	2.45	1.33

F=54.67\*\*\* R<sup>2</sup>=.39 DW=1.86

\* p<.05, \*\*\* p<.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감능력은 ‘개인적 고통’을 제외한 ‘관점 취하기’, ‘동일시’, ‘공감적 관심’에서 중간 값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감적 관심’을 가장 높게, ‘개인적 고통’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았는데 특히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변인은 ‘동일시’였다. 성에 따른 공감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Kim(2003), Kim(2011), Jeong(2012) 등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전반적인 공감능력이 남학생 보다 높았고, 공감능력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남녀학생 간 차이에서 ‘동일시(상상하기)’ 점수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난 Hong(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은 하위영역 모두에서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가족건강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Choi(2013), Hyun, Shin과 Lee(2014)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이다. 청소년들이 의사소통 및 유대감을 가장 낮게 인식한 것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높은 교육열로 인한 자녀들의 학습시간 증가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Yoo, Kim, Lim, Choi, & Chae, 2011),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및 유대감’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및 유대’를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행복감은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Shin과 Lee(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행복감과 Heo(2009)의 연구에서 측정된 행복감과 비교하여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러 지표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낮다는 결과가 있어 본 연구 조사 결과도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인식하는 정도는 낮은 수치는 아니었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공감능력 중 동일시,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과 가족건강성 중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재정적 안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존중 및 애정’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Steinberg, 2008), 가족과 안정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할 때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기(Koo & Park, 2005)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건강성 중 ‘재정적 안정’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Park과 Lee(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재정적 안정이 높다고 해서 행복감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Inglehart가 세계 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졌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후에는 소득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었다(Kim, 2009). 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이 보장 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감능력 하위영역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동일시’가 높을수록, ‘공감적 관심’이 높을수록 ‘개인적 고통’이 낮을수록 행복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Lee & Lee, 2008) 사회적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능력의 ‘개인적 고통’은 다른 사람이 겪는 불행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본인도 공포·불안·고통 등을 느끼는 것으로 행복감에 대해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고통’이 크게 지각될수록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 자기지향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며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고 심리적 안녕감도 낮아지게 되어(Cho & Lee, 2010) 행복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공감능력의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서로 행복감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적 고통’이 공감의 정서적인 요소를 측정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Park, 2004)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력이 있는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 향상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가정교과는 ‘삶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라는 성

격과 ‘인간의 행복, 휴머니티의 실천을 통하여 행복을 실현하는 교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Wang, 2015),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에 적합한 교과로 여겨진다. Kim과 Jun(2011)은 가정교과가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m(2013)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함양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수업이 중학생의 인지공감능력 및 정서공감능력 모두를 함양하는데 유의한 변화를 가져 왔고, Jeong(201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가정과 수업을 통하여 변화하는지를 학교 현장 실험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즉, 학교교육과정 중 가정교과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감에 가족건강성의 ‘가족존중 및 애정’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건강성 중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재정적 안정’도 청소년의 행복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영향 변인이었다. 즉, 가족 간 존중과 애정을 보이고 서로 역할을 공유하고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가족 속에서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가족 캠프와 같은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가족 간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재정적 차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가족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노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개인적 고통, 동일시, 공감적 관심 등 공감능력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하려면 공감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을 위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지속적인 노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적 고통, 동일시, 공감적 관심과 같은 특성을 프로그램 개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에 의해 인지된 ‘관점취하기’가 공감능력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고 타인의 관

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이 인지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과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가정교과는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복을 실현하며 가족건강성, 공감능력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교과이므로 가정과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에서도 필수화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 방법에서 편의 표집을 했으며, 광주광역시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선 표집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정 시점에서 일회의 측정만으로 이루어지는 횡단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 독립변수가 행복감과 연관성이 있는 관련 요인일 뿐 행복감을 결정 혹은 예측하는 요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그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독립변수와 행복감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한 종단적 성격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가족건강성, 공감능력과 행복감의 관계를 발달단계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여 양적 조사로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관찰, 심층면접 등의 질적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Ahn, J. Y. (2007).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Ahn, N. Y. & You, Y. D.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depression/happines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5), 3201-3215.
- Bae, K. E. & Kim, E. H. (2007).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s, family function, ego-ident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3*(3), 357-366.
- Baek, S. J. & Lim, Y. J. (2013). Social suppor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2), 25-3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 K. H. & Kim, M. S. (2002).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high-school students.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3-209*.
- Cho, G. H., Kim, J. Y., & Choi, K. S. (2009). The cultural disposition and anger-control.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1), 69-90.
- Cho, K. H. & Ko, J. H. (2012). The role of positive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 of negative life events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30*, 91-116.
- Choi, Y. M. & Weon, S. S. (2013). Influence of family strengths of the adolescents on the adjustment to the scho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 199-216.
- Choi, Y. R.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s and self efficacy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Chosun.com(2015. 4. 25). 어떤 기준으로 조사해도... 한국인 행복순위는 하위권[By any standards... The ranking of korean happiness ranked lower]. Retrieved from <http://news.chosun.com>.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DeFrain, J. (2002). Global perspective on strong families. *Building family strengths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book, June*, 12-14, Shanghai, China.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o, E. J. & Yoo, Y. J. (1995).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5-156.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3), 1-24.
- Han, M., Choi, I. C., Kim, B. J., Lee, H. J., Kim, K. M., & Ryu, S. G. (2012). Happiness of korean adolescence: Age-based comparis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217-235.
- Han, S. Y. (2015). Effects of adolescent self-conscious emotion, empathy, and forgiveness on prosocial behavior by gender and a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5), 117-131.
- Heo, Y. S. (2009). *A study on happiness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 Hoffman, M. L. (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judg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ng, K. M. (2004).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level and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C. S. (2006).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transition of attachment func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17*(1), 201-225.
- Hyun, J. M., Shin, H. S., & Lee, S. J. (2014).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 on achievement motivation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3), 1-15.
- Im, Y. S. (2004). *The comparison of adolescents' positive self-percep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attributional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H. S. (2004). *Adolescence*. Seoul: Hakjisa.
- Jang, J. H. (2002). *The effect divorce parents and the family environment is influenced to children : Centering a happin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I. K. (2012). *Psychological variable, family variable and empathic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Jeong, J. W. (2013). *The influenc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with priority given to the unit 'Understanding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ChunBuk, Korea.
- Jung, E. S. (2008). *The effects of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roles of hardiness and perfectionism as media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J. Y. & Lim, J. H. (2011).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1), 37-51.
- Kim, Y. T. (2009). Happiness exponent and sociological approach. *Conference of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75-90.
- Kim, E. A. (2011). *The relation of defending behavior and empathy, self-efficacy, belief in classroom nor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ositive affects,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Kim, H. S. & Kim, K. S. (2011). A study of related variables to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2), 59-86.
- Kim, H. Y. & Hong, M. A. (2007). Exploration of the extents and factors explaining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269-297.
- Kim, H. Y. & Kim, M. S. (2000). Analyses on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and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subjective well-Being(SWB) among korean marri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5(1), 27-41.
- Kim, J. E. (2012). *The differences of empathy, prosocial moral reasoning and group norms according to the role of bystanders in bullying situation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 Chung, H. J. (2008).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 *Social Welfare Review*, 13, 171-190.
- Kim, J. H. (2002).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dolescent's empathy, and their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to frien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E. & Choi, E. H. (2010).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adjustment at school -Focused on mediation effect of self-resilienc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4), 641-653.
- Kim, M. H. (2003). *The study of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 Kim, S. H. (2013). *The influenc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middle students' developing empathy - with priority given to the unit 'understanding of family values\_for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Buk, Korea.
- Kim, S. Y. & Baek, H. J. (2008). The construction of korean youth happiness index.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6), 140-173.
- Kim, T. H. (2015). A study on the empathy. *Elementary Moral*

- Education Journal*, 47, 1-27.
- Kim, Y. H. & Koh, T. S. (2014). Relationships among hope, empathy and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ntents*, 14(10), 330-338.
- Kim, Y. H. (2010). The relation of daily stress and ego-resilience to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287-307.
- Kim, Y. J. & Jun, M. K. (2011). 가정교과의 건강가정내용 분석과 가정교사의 건강가정에 대한 인식[Analysis of the health families inspections in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teachers' recognition of health families]. *Proceedings of the 2010 Wint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Korea, 185-186.
- Kim, Y. K. (2010). *A study on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 Koo, H. Y. & Park, H. S. (2005). Levels of and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korean adolescent.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3), 322-329.
- Koo, H. Y., Park, H. S., & Jang, E. H. (2006).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1), 151-158.
- Kwon, S. M. (2008). *Positive Psychology*. Seoul: Hakjisa.
- Kwon, S. W. & Song, I. H. (2011). Cognitive distortions as a moder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Youth Welfare*, 13(3), 67-92.
- Kwon, S. W., Lee, A. H., & Song, I. H. (2012). A study on adolescent happiness : Application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3(2), 39-72.
- Lee, E. K. (2005). *The effects of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on subjective well-being : the importance of depression and positive emo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E. & Kwak, Y. J.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in the early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59-83.
- Lee, H. J. (2008). *The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flow and meaning in life of high school students upon their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of Education, Daegu, Korea.
- Lee, H. K. (2007).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y subgroups of hope and empath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3), 751-766.
- Lee, J. H. & Cho, Y. A.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2), 579-594.
- Lee, M. R. (2003). Daily contextual variations in levels of adolescent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313-330.
- Lee, S. J.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influencing variables on perceptions of parenthood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2), 301-311.
- Lee, S. M. & Lee, K. N. (2008). Correlates of prosocial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1-12.
- Lee, S. M., Yu, H. K., & Son, H. D. (2008). A discriminant analysis of bullying conformity types depending on empathy and self-esteem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3), 1231-1244.
- Lee, Y. S. & Yoo, S. J. (2014). Analysis on the elements of activating happiness education suggested by noddings reflected in the home economics part of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volume 1 of 2009 curriculum revis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1), 31-53.
- Leontopoulou, S. (2010). An exploratory study of altruism in Greek children: relations with empathy, resilience and classroom climate. *Psychology*, 1(5), 377-385.
- Lim, M. H. & Park, Y. S. (2006). A study of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ing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12, 159-179.
- Lim, Y. M. & Lee, Y. S. (2012). 이영숙 박사의 한국형 12성품교육

- 론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및 주관적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Korean Dr. Lee Young-sook's theory of education for 12 attributes on the interpersonal and subjective well-being of youths]. *The Character Journal*, 2, 128-154.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Retrieved from [stdweb2.korean.go.kr](http://stdweb2.korean.go.kr)
- Paikoff, R. L. & Brooks-Gunn, J. (1991). Do parent-child relationships change during puberty? *Psychological Bulletin*, 110(1), 47-66.
- Park, B. S. & Bae, S. W. (2012).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among school adolescents -Comparison of gender and school types-. *Journal Youth Welfare*, 14(3), 215-238.
- Park, H. J. (200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 determinat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Park, H. W. (2002). A study of effects of empathy training on the empathic ability and the self-esteem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I., Park, C. U., Seo, H. J., & Youm, Y. S. (2010).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2), 121-154.
- Park, S. H. (2004). *Empathy*, Seoul: Hakjisa.
- Park, S. Y. & Lee, H. J. (2013).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1(2), 73-84.
- Park, Y. S. & Kim, U. C. (2008). The quality of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4), 801-836.
- Park, Y. S. & Kim, U. C. (2009).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5(3), 399-429.
- Reivich, K. & Shatte, A. (2002). *The resilience factor :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Broadway Books, New York, USA.
- Ryu, S. H. & Kang, B. H. (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happiness. *Studies on Korean Youth*, 23(4), 27-50.
- Shearer, C. L., Crouter, A. C., & McHale, S. M. (2005). Parents' perceptions of changes in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6), 662-684.
- Shin, H. S. & Lee, S. J. (2012). The effects of microsystem and self-knowledge variables on happiness perceived by adolesc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4), 105-133.
- Shin, M., Jeon, S. H., & Yoo, M. S.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31-150.
- Son, J. N. (2002). A study on identification of family function, and family type in boys high school students by smok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1), 78-88.
-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2017 Statistics of Youth.
- Steinberg, L. (2008). *Adolescence*. New York, NY: McGraw-Hill.
- Stetson, E. A. & Hurley, A. M. (2003). Can universal affective education programs be used to promote empathy in elementary aged children? A review of five curricula. *Journal of Research in Character Education*, 1(2), 129-147.
- Sung, E. M. & Kim, G. H.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happiness,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al traits of adolesc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24(4), 177-202.
- Wang, S. S. (2015). 미래사회의 변화와 가정과 교육과정 연계 방안의 탐색. [A search for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and the interrel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Proceedings of the 2015 Spring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Korea, 102-129.
- Yang, N. H. & Hong, E. S. (2011). A study on the family strength

and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4), 143-157.

Yoo, G. S., Kim, S. H., Lim, J. H., Choi, H. R., & Chae, H. H. (2011). Effects of the frequencies of family leisure and meals and family closenes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ociality.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3), 99-116.

Yoo, Y. J. (1999). A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sound home and healthy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3), 93-102.

Yoo, Y. J.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19-151.

Yoo, Y. J., Lee, I. S., Kim, S. K., & Choi, H. J. (2013). Development of korea family strengths scale(KFSS- II).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4), 113-129.

Yoon, J. Y. (2001). *Study on the juvenile's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Yun, Y. J., Lee, M. S., & Jun, C. A.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health, parental monitoring,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2), 113-126.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공감능력과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가족건강성,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감능력은 '개인적 고통'을 제외한 '관점 취하기', '동일시', '공감적 관심'에서 중간 값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았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은 하위영역 모두에서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및 유대'를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행복감은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감에 공감능력 중 동일시,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 중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재정적 안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행복감을 39%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8월 25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9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12월 28일